

「내 자식」만 너무 챙긴다

우리 교육 · 우리 미래

현장 진단 · 내일에의 처방

<18>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지얼만된 최근, 학교길 단도에서 이런 광경을 살다들은 H부인(37·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아들을 데리러 국민화물차를 타고 올 강남대교(강남대교) 근처에 갔다가 교도부근에 있는 학교길 단도에서 이런 광경을

앞자리 앉혀달라 教室마다 民願 登교길 횡단 安全 봉사 확산 추세



<그림: 白寅洙>

어린이 10여명과 어머니 1명이서 있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빠른 걸음걸이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뒤이어 건너기 시작한 다른 어린이들은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서둘러 차들이 이미 슬로우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겨우 건너 횡단보도를 건넌 후 있었다. H부인은 자녀교육에 대해

한 열의를 보이고 보면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세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무나 자신만 생각하는 나머지 전체를 위한 원칙이나 질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국도시지역의 각 국민학교마다 녹색 어머니회가 조직돼 주로 등교길의 어린이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년부터 시작된 녹색 어머니회 활동은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어머니들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했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식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H부인의 얘기다.

교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신학년 신학기가 돌아오면 국민학교마다 『앞자리 앉혀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져 들어온다. 한 일선교사는 『키도 크고 눈도 좋은데 앞자리에 앉혀달라』고 유학한다. 어떤 학부모는 공부 잘하는 아이 옆에 앉혀달라

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좌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학교 1학년 신입생들의 자리배정에는 『앞에 앉혀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 안과병원의 시력검정서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한상 내자식 중산층이란 사리를 판단하는데서 비롯된다. 全州市의 한 국민학교 교사

는 아이들 싸움 때문에 담임교사의 입장이 난처해질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東亞日報 연재 인기 정치 비화

남산의 부장들

金忠植 著 (동아일보 기자)

정치공작사 KCIA

● 각권 5,500원
전국유형서점 점원리 판매중

학부모단체

權 五 淑씨
<35·외무부 통상과 1등 서기관·姜大鉉씨 부인>



아이들歸家수업제 지도

친구와 함께 놀며 사회성 기르도록 배려

일본의 엄마들은 자녀를 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하고 있다.

유치원생의 경우 방과후에도 집에서 혼자 놀지 않는다. 엄마들이 10명의 정도를 모아 함께 놀아준다. 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 우는 아이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잘 어울려 놀 때까지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가 따로 없다는 생

아이의 생활패턴은 부모와 아이를 함께 초대한다. 엄마들은 생활패턴을 맞춘 아이들, 아이들이 잘 때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집까지

에 따라 4, 5개 그룹으로 나누어 2월도 행진한 다. 한 엄마가 앞에서 지갑을 들고 가고 교사가 중간에서 보고 다른 엄마가 맨뒤에서 따라간다.

엄마들이 마지막 아이가 지귀시킨 뒤 학교로 돌아온다. 바쁘더라도 이 귀가지도순번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여간해서 하지 않는다.

일본의 유치원이나 학교는 이처럼 학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깊고 학부모회의 바람을 학부모 모임을 많이 한다.

<특별취재반>

국민학교의 생활과제는 아이의 케이크 하나 놓고 놀라 한잔 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 고학년 스토리에서 파티를 열어서 비디오텍을 활용하고 돌아갈 때는 5천~1만원짜리 선물을 주는 과소비 생활과제가 여러가지 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극소수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반장 선거비용을 의식한 생활과제를 열어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버지의 직업이나 아파트 평수 등을 따지며 가난한 집 아이는 생활과제에 초대하지 않아 어린이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 일선교사는 말했다.

내자식만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일그러진 모습을 과는 달리 우리 초·중·고교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민란도 많다.

서울 중학교의 李完周 교장은 학교에 귀한 나무 한 그루를 기증해준 학부모에게 『나무에 이름을 새긴 팻말을 붙여주었다』고 했더니 『아이가 우물거리면서 대답하는 것』과 사소한 것 하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해마다 연말이면 가난한 아이들의 집에 익명으로 보내달라고 쌀을 몇가마씩 보낸다. 학부모들도 있다고 했다. 李교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도 자식의 아이와 다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내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써주는 학부모들을 만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